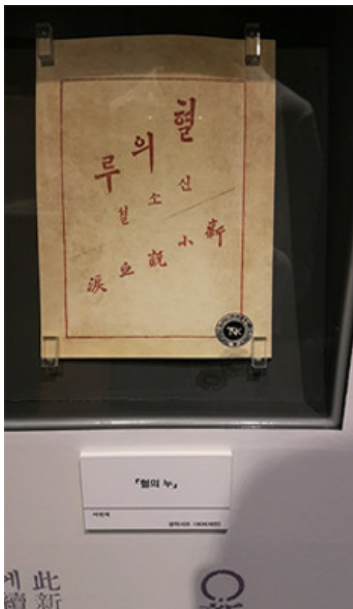


월남의 역사, 민족의 정체

월남의 역사는 민족의 정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월남은 서양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했다. 1945년 8월 15일, 26년 만에 독립을 얻었지만, 1980년대까지 남북 분열과 내전으로 고통을 겪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월남은, 여전히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월남의 민족 정체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월남은 서양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경험했다. 1945년 8월 15일, 26년 만에 독립을 얻었지만, 1980년대까지 남북 분열과 내전으로 고통을 겪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월남은, 여전히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월의누』



『월남망국사』

월남의 민족 정체성은 1906년 7월 22일, 프랑스가 월남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10월 10일 50년 만에 독립을 얻었지만, 20세기 말까지 남북 분열과 내전으로 고통을 겪었다. 1907년 1926년까지, 월남은 300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월남의 민족 정체성은 “월남의 민족 정체성은 월남의 민족 정체성이다”라는 문구로 표현된다. 월남의 민족 정체성은 “월남의 민족 정체성은 월남의 민족 정체성이다”라는 문구로 표현된다.

□,□□/ □□□□□□3.0 □□□□ □□□